

[개관전 오프닝 퍼포먼스] Tete-A-Tete

2023.06.03 11:20

김모든·정규연



안무/연출/퍼포머 김모든, 정규연
 사운드 디자인 최혜원
 의상 디자인 최인숙

김모든 모든 컴퍼니(Modeun Company)

예술감독

공식 홈페이지) modeuncompany.imweb.m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modeun_company/

정규연 큐댄스컴퍼니(Q Dance Company)

예술감독

공식 홈페이지) qdc.imweb.m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_qdancecompany_/

스페인어를 비롯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서도 ‘머리’를 뜻하는 ‘tete’가 포함된 듀엣 퍼포먼스 Tete-A-Tete는 머리를 맞대고, 단둘이 마주앉아 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번 오프닝 퍼포먼스는 ‘예술가’와 ‘시민’ 때로는 ‘작품’과 ‘관객’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시작하는 “광명시작”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고대하며 기획하여 기존작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안무가이자 퍼포머인 김모든, 정규연의 몸짓은 서로 왕래하고 때로는 공명하며, “광명시작”이 문화예술로 시민들과 함께 일궈낼 Tete-A-Tete의 이미지를 끌어냅니다.

광명시작

예술공간 광명시작 개관전

볼로야 양영신 장은경

개관전

2023.6.3.(토) - 6.30(금)

전시 함께 만든 사람들

전시 참여 작가 볼로야, 양영신, 장은경
 오프닝 퍼포머 김모든, 정규연
 그래픽디자인 파리카 (이수향, 하지훈)
 기록사진 포이즌송 (송광찬)
 기록영상 헤즈스튜디오 (헤즈킴)
 전시 큐레이터 김미교
 기획/구성 축제재성 (서상혁)

주최/주관 광명문화재단
 협력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

관람 안내

2023년 6월 3일(토) ~ 6월 30일(금) 10:00-18:00
 (매주 월, 화 / 공휴일 휴관)

관람료

무료

주차

이케아 광명점 주차장 내 유료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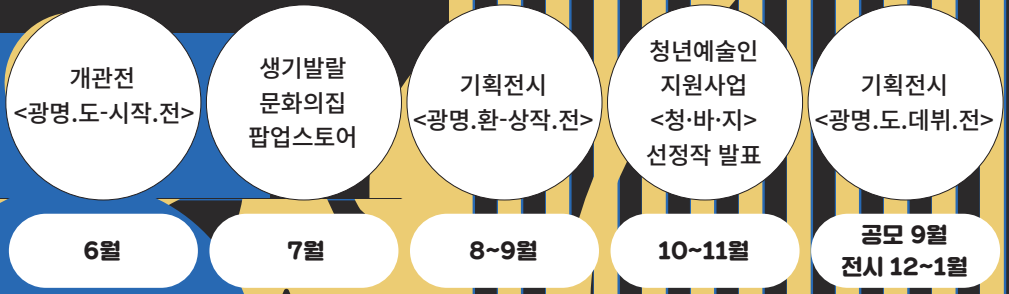
광명문화재단
 www.lifegmcf.kr
 02-2621-8879, 8874

예술공간 광명시작
 경기 광명시 일직로 17
 IKEA광명점 P1층

관람 10:00 - 18:00
 무료 | 매주 월, 화 / 공휴일 휴관
 문의 광명문화재단 02-2621-8879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예술공간 광명시작**

예술공간 광명시작 (부제 : 모든 사람을 위한, 작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한)은 광명문화재단, 광명시, 이케아 광명점이 협력하여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기획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발표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과 예술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공간 광명시작은 누구나 '광명'에서 출발해 '예술'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향유자와 창작자의 '예술 경험' 시작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챕터의 첫장,
광명시작**

김미교 (독립큐레이터)

예술공간 광명시작의 개관전인 «광명.도-시작.전»은 3인의 작가, 봄로야, 양영신, 장은경의 도시에 대한 3가지 시선으로 시작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할 작품들은 3가지 시선으로 수집된 도시에 대한 기록이자 전시의 관람객들이 이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도시는 시민들 각각의 일상에서 매 순간 새로운 '도시와의 기억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기억들은 '무의식'으로 밀려나거나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도 하고, 일상 속에 '추억'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쌓인 기억과 기억은 서로 연결되어 도시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여기서 도시-광명시를 대상으로 한 예술은 각자가 가진 '광명시와의 기억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다양한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게 돕는 주요한 매개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시에 참여한 3인의 예술가들을 비롯해 광명문화재단은 광명시작 이야기의 도입부로서 «광명.도-시작.전»에서 예술가와 작품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마주하고 서로의 기억을 엮어낼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한다.

봄로야

instagram.com/
bom_roya

시각예술작가, 기획·매개자로서 '멜랑콜리아적 헤프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봄로야 작가는 무언가 떠나보내거나 상실한 상황에서의 복합적인 상념을 드로잉, 텍스트, 흥얼거림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기록한다. 특히, 도시와 여성에 대한 사적 경험과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하고, 다양한 장르/분야와 협업 작업을 통해 재맥락화 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드로잉 작업을 통해 도시 경계를 다룬 <답 없는 공간: 근사한 악몽>(2016-2018)과 <다독풍경>(2019)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개발을 앞둔 광명시의 여러 실제 풍경들과 우리가 재개발을 앞둔 구도심의 풍경에서 느끼는 데자뷰적 인상을 시각적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한다.

양영신

vjyoungshin.wixsite.
com/index
instagram.com/
youngshin_
yang0303/

작가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과 찰나를 살피고 수집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들은 같은 시공간 속에서 자신과 관계맺는 다양한 풍경들의 끊임없는 찰나를 기록하고 시각적으로 반복 재생한다. 광명.도-시작.전에서 선보이는 <Our Nature d>는 4쪽 병풍 속에서 수많은 외곽선들이 연결된 풍경을 통해 낯설고도 친숙한 도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매 순간 마다 변화하는 외곽선은 강조된 잔상처럼 다음 외곽선과 이어지고, 작품 앞의 관객은 매순간 같은 대상인 동시에 다른 형태인 이미지들을 마주할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도시의 기억들을 스스로 소환하며, '광명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재발굴하고자 한다.

장은경

linktr.ee/
eunkyoungjang
instagram.com/
eunkyoung_jang

작품을 통해 정보와 정보를 새로운 관점과 맥락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장은경 작가는 정보를 수집할 때 문화인류학적, 고고학적 태도를 취하며 대상에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장소의 기억을 연결해, '그 장소'에 놓인 '그 대상(물질)'을 매개로 절묘한 이야기 혹은 개념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빛나고 밝은' '고고학자 장은'의 '부곡 환타지'에서 실상과 가상이 교묘하게 뒤섞인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제시하며, 작가가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한 '광명시'의 여러 모습들과 우리의 친숙한 일상 속에서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도시의 여러 잔상들을 연결하며 도시의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낸다.